

##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위령 성월**  
11월 위령 성월 연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열린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11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에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알립니다**  
오늘 미사 후 구역장님들 모임이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바랍니다.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Sight & Sound Theater <Miracle of Christmas>**  
일시 : 12월 4일(수) 오전 10시 출발  
참가비 : \$80 (티켓, 식사 포함)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1) 마틸다 구역 : 11월 10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주관>  
2) 비오 구역 : 11월 16일(토) 오후 6시 30분 윤모니카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3) 글로리아 구역 : 11월 23일(토) 오후 6시 Ruby Buffet(체리힐)에서 있습니다.  
<강옥화 소피아 자매님과 흥혜자 마리아 자매님 주관>

##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마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프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 7, 1-2. 9-14
화답송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제2독서	데살로니카 2서 2, 16 - 3, 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음	† 루카 20, 27-38
봉헌성가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퇴장성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



주님 저는 깨어날 - 때 당신 모습 - 에 흠족하리이다

#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복음에 담겨 있는 매우 독특한 이 표현은,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지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존재라는 믿음,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사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두가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관하여 자주 논쟁을 벌이고는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두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경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은 하느님 앞에서 당연히 살아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지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그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계속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영혼이 종말 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일곱 형제와 어머니처럼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마저 내어놓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이는 결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우리들의 기도

##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32주일 11월 10일	연중 제33주일 11월 17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 24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박영희 마틸다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이상민, 이수영	김희동, 김영미	김정숙, 송미라

# 우리들의 주일정성

< 11월 3일(일) >

봉헌금 \$537.00

교무금 \$300.00

미사예물 \$20.00

**Total \$857.00**

안우풍(10-12)